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밤 11시에 성찬식과 함께 있습니다(성찬 위원: 시무장로, 안수집사).
2. 2021년 1월 첫 주일(3일)부터 예배 시간을 1부 11시 30분, 2부 오후 2시(찬양예배)로 변경합니다. 또 예배 순서에 첫 찬송 다음 '참회의 기도', 교회 소식 다음 '공동 성경 읽기'가 포함됩니다.
3. 12월 정기 당회가 예배 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3시 40분).
4.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021년에 교회 각 부분을 함께 섬길 성도들은 자원해 주십시오(교사, 찬양대, 주차 안내, 차량 봉사, 예배 준비 등).
5. 2021년도 달력(벽걸이, 탁상용)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성도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6. 교회 생활 안내집인 요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7. 각 공동체 예배는 내년 1월까지 방학에 들어가며 각 선교회에서는 신 임원 명단과 내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1월 17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8.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로 신임 직분자 임명과 함께 명예 권사 추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9. 청소년, 청년부 수련회를 섬겨주신 성도들, 또한 성탄 장식과 전야제 준비에 함께 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0. 2021년도 용 작은 수첩이 50권 있습니다(기증: 최광암 안수 집사, 시드니 거주).
11. 이번 주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12. 밑알 장애우를 섬길 손길이 모자랍니다(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 점심 나누어주는 사역).
13. 청소년부를 담당한 이성철 목사는 사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1월 교회지역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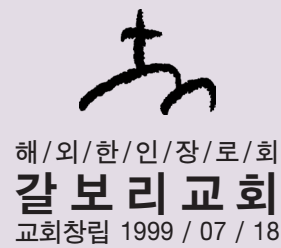
1월 3일 (주일)
신년주일
1월 22일 (금)
금요일 기도회
1월 24일 (주일)
권사기도회

1월 기도 순서

1월 3 (주일)
손조훈 집사
1월 6일 (수)
가정예배
1월 10일 (주일)
이정인 집사
1월 13일 (수)
가정예배

1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김병진, 김명춘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송년주일

22권 52호 2020.12.27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인도자
✧찬 송	-----	다함께
✧신앙고백	-----	다함께
찬 송	-----	다함께
대 표 기 도	-----	박병민 장로
성 경 봉 독	-----	인도자
찬양대찬양	-----	다함께
설 교	-----	이태한 목사
찬 송	-----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응 답 송	-----	다같이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 요 예 배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목요일(31일) 밤의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기 도 12월 31일 현석호 장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일예배 수 7:30 pm
금요일기도 금 7:00 pm
유아부 주일 1:00 pm
아동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금 주 기 도 황보준호 형제
다 음 주 일 이에찬 형제

선교란

이번 주는 Prayer Together에서 보내온 남,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 소식]

유엔, 16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과 성폭력, 자의적 구금, 조직적 납치는 물론, 종교, 표현, 집회의 자유 제약을 지적하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UN 북한 인권결의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행됨으로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실질적인 개선이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소식]

평등법, 이름만 바꾼 차별 금지법: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해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동반연이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조배숙 전 의원은 “동성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과 타고난 육체적 성과 다른 성으로 성별 변경 행위를 포함하는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하고 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이고 도덕과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을 법으로 차별 금지 사유로 하는 것은 법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차별 금지가 적용되는 영역이 이전에는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4대 영역이었는데 이 법안은 3조 제1항 5호에서 위 4개 영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금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하여 그 위임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은 무제한 위임입법으로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듯하지만 이 조항도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 예외 조항도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한다”고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한국에서 동성에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태죄 개정 시한 압박: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으나, 정부와 국회의 ‘늑장 논의’로 낙태 관련 입법도 정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을 맞게 됐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 시한을 3개월 앞둔 지난 10월에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15주부터 24주까지는 일정 조건 하에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권인숙·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 힘 조해진·서정숙 의원은 낙태죄를 유지하고 낙태 허용 주수를 10주로, 정부안보다 낮추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낙태죄 관련 첫 공청회는 ‘입법 공백’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8일 열렸습니다.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법 개정은 불가능한 상태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죄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국민들이 낙태는 살인임을 깨닫고, 태아 생명 살리는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란

2020년 12월 20일 주일에배 설교말씀 <성탄을 위한 여행> 누가복음 2:1-7

대림절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막 13:26)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2:4).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며 롯기서의 배경이 되는 동네이며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고 예언된 곳입니다(미 5:2). 베들레헴은 우리가 향해가는 천국과 같이 기쁨과 평안함, 즐거움과 문제 해결이 있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베들레헴을 향해 갔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한 길을 가야 합니다.

1)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그네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계 21:4).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을 영원한 곳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세상에 집착해 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두려워하는 어린 동생들에게 “울지 마라,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라고 외친 소녀처럼 우리의 살 소망도 천국에 대한 기대와 확신에 두어야 합니다.

2) 목적지를 향한 여행길에 뜻밖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목을 곳도 아기를 해산할 방도 없었습니다(7). 인생길에서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좌절과 낙심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롬 8:28). 우리가 사방으로 육여쌈을 당하여 도 싸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고후 4:8)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이 능력과 힘이 됩니다. 천 국을 소망하며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모든 염려와 불안을 거둬가 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빌 4:6).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벧전 5:7). 우리 중에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눅 6:27).

3) 여행길을 마치면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마침내 강보에 싸인 아기의 모습을 볼 때 모든 시름이 잊혀집니다(7).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기에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쁨과 안식을 주시려 하나님인 예수님이 성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탄이 내 삶의 이유이며 나의 존재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딤후 4:7).

대림절을 보내며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우리를 살리시려 성탄 하사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천국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어떠한 역경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 출애굽기 3: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